

한일문화재반환협상 문서 공개돼야

공개된 한일협정 외교문서엔 주일대사 전보만 포함 문화재 청구권 존속 확인 위해 필수... “불평등 협상”

세인의 관심 속에 한일협정 외교문서 일부가 1월 17일 공개됐다. 문화재반환협상 문서도 함께 공개될지 기대를 모았으나 이와 관련된 것은 주일대사가 국무총리에게 보냈던 전보가 전부였다. 따라서 도자기·고고자료·석조미술품·장신구 등 176건 433점, 서적 163부 852권, 체신자료 20건 등의 초라한 반환성과를 올린 채 막을 내린 한일협정 문화재반환협정의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아 협상 과정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문화재반환협상 문서 왜 빠졌나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청구권과 관련된 것들만 제한했다. 그 이유는 이번 공개의 직접적인 사유가 정용피해자의 개인청구권 소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외교문서 공개요구 소송이었기 때문이다.

미쯔비시공공법에 징용됐다 피폭된 한국인 6명의 2000년 5월 정용피해 배상 요구에 대해 일본정부는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주장, 개인청구권 소멸 여부 재판의 쟁점으로 부각됐다. 사실 확인을 위해 외교부는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외교문서 공개를 요청했고, 행정소송까지 거쳐서야 1월 17일 161건 가

운데 청구권 관련된 5건이 공개됐다.

어떤 내용이 공개됐나

공개된 문서 가운데 문화재반환협상 관련된 내용으로는 1965년 3월 31일 주일대사가 국무총리에게 보냈던 전보(JAW-03716)가 유일하다. 전보에는 “청구권으로서 문화재 반환을 요구한다는 한국의 입장”과 “권리는 부인하지만 문화협력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재를 인도하겠다는 일본의 입장”에 차이가 있으나 명백한 해결점을 찾지 못했으니, 향후 구체적 교섭에 있어서 아(我)측이 권리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수 없지 모르니 양해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협정 체결 직전까지 양국의 입장차이가 극명했음을 보여준다.

문화재반환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협정조약의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은 일본이 부속서에 열거된 문화재를 대한민국의 정부에 ‘인도’할 것과 민간이 소유한 문화재의 자발적인 기증을 권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속서의 목록은 중요 문화재나 국보는 한 점도 포함되지 않은 빈약한 것이었고, 사유문화재 또한 전혀 포함

되지 않은 무성의한 것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일본으로 반출된 모든 문화재 반환을 주장해온 한국측 입장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일본 측이 1960년 제시한 문화재 3원칙(1.국유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돌려준다. 2.사유문화재는 인도할 수 없다. 3.문화재를 인도하는 것은 정치적·문화적 고려에 기초한 것이지 법률적 의무에 토대한 것이 아니다.)이 관철된 것이다. 또 ‘반환’이 아닌 ‘인도’라는 표현을 택한 것 또한 호의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1964년 11월말까지만 해도 정부는 “1965년 이래 부당하게 일본으로 반출된 모든 일본 국유 및 사유의 한국문화재를 반환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화재 협정은 정치 논리에 따라 합의에 도달한 의혹이 짙다. 당시 전문위원으로 협상에 참가한 황수영 박사도 “협상에서의 방침은 정치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일협정 체결에 돌파구를 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종필-오하라(方平) 회담 결과에 대한 한일 양측의 해석도 엇갈린다. 당시 일본 측은 김·오하라 메모로써 한국문화재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한 데 반해, 한국 측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화재 청구권에 대한 해석은 향후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 3만4천여 점(정부 추정, 10만여점이라는 설도 있음)에 달하는 한국 문화재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로서 매우 중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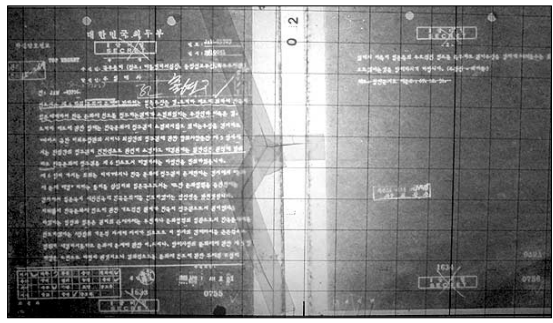
문서 공개의 필요성

한일문화재 협정의 성격을 분명히 이해하고, 문화재청구권 소멸 여부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돼야 한다. 현재 알려진 협정 및 일부 관련 사항만으로는 이문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해외유출문화재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는 기증, 매입, 정부간 협상을 통한 반환 등이 있다. 일본이 근대에 수탈해간 문화재만도 수만점이 돼 이들을 돌려받는 데는 정부간 협상이 아니고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세우기 어렵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을 통한 반환 노력이 가시화된 것은 없다.

협상을 통한 반환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외교문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해 협상 근거를 확보하고 협상 전략을 세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news.com



1965년 3월 31일 주일대사가 국무총리에게 보내는 전보(JAW-03716). 김·오하라 메모가 문화재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측 해석이 담겨 있다.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3>

생물우주와 방거사

우주의 기원과 생명, 특히 인간을 탄생시킨 진화의 오묘한 조화는 과학자 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감탄하게 만든다. 지구와 같이 생명이 존재하는 또 다른 행성이 있을까? 최근 과학자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추론은 우주의 기원과 물질의 이해와 맞닿아 있다.

우주를 이루는 기본적인 힘이라고 믿어지는 만유인력, 전자기력, 그리고 원자를 이루는 소립자간 힘이 존재한다. 만약 만유인력이 0.1%만 달랐어도, 지구의 공기에 탄소가 없고, 물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탄소 동화작용이 없으며, 이를 섭취하는 인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 많은 천체의 별들 사이에 작용하

고, 심지어는 설명을 불허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보다도 더 장엄한 인간과 우주의 조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무대를 발견한다.

눈송이가 떨어진다. 눈송이가 땅의 한 지점으로 떨어지는 것이 의미 없는 한 가지 사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인은 눈의 순백에서 원초의 흔적을 느끼기도 하고, 과학자는 눈이 가지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결정체를 현미경 아래서 발견하기도 한다. 한 길을 더 나아가 보자. 공기에 먼지가 없었으면,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 먼지가 태양 빛을 흡수하기에 지구 표면에 파장이 가장 긴 빨간색이 가장 많이 남았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뭇잎은 빨간색을 흡수하는 대신, 초록색을 반사하

떨어지는 눈송이에 우주 질서·생명 담겨 ‘나’와 무관한 것 아무것도 없음 알아야

는 힘, 그리고 소립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힘 모두가 지구에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선가에서 추앙받는 위대한 깨달은 자 중 중국 당나라의 방거사가 있다. 향엄 스님의 절에 머물렀다 떠나는 날 아침, 떠나보내는 아쉬움으로 향엄 스님은 제자 10여명을 보내 배웅했는데, 마침 눈이 오고 있었다. 내리는 눈을 보면서 스승과 방거사가 한 말씀이다. “어느 눈송이가 하나도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옆의 제자 중 한명이 그러면 어디로 떨어질지 하고 물었다가 주먹 한 대를 얻어 맞았다. 벽암록이라고 옛 선문답을 모아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이다. 흔히 선문답은 우리들을 여러등절하게 만들기도 하

고 있다. 우리가 초록색을 좋아하는 것은 식물에게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생존할 수만 년 진화의 흔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먼지가 없었으면 우리의 생명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눈송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바로 그 자리에 떨어지는 것 하나까지도 우리 생명, 아니 무생물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방거사의 선문답은 이러한 생물우주관과 하나 된 자의 위대한 소네트라고 할 것이다.

눈 오는 날, 이유 없이 마음이 들뜨고 불안해질 때, 방거사의 눈을 생각하면 서 이 눈이 내리는 전혀 다른 존재일까하고 물어보자. 다른 무엇으로 느껴진다면, 그렇게 느끼는 자는 누구인가를 곰곰이 되 물어보도록 하자.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초고속통신망 가입자 수가 1천160만을 넘는 오늘날 인터넷의 영향은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종교영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종교 관련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추세에 주목하고 인터넷 이용이 종교영역에 야기한 변화와 그것의 종교사회학적 의미를 파헤친 박사학위 논문 ‘인터넷 이용과 종교의식’이 발표됐다.

고려대 박수호씨(사진)는 ‘인터넷 이용·종교성·인터넷 종교활동·종교의식’ 등 네 개 영역의 척도를 구성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문을 설계해 불교, 개신교, 가톨릭의 종교 사이트 이용자 1천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하루 평균 종교 사이트 이용 시간은 50.93분 이고, 종교활동 공간은 오프라인 종교시설과 온라인 종교사이트 비율이 6:4 정

도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종교성이 낮을수록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박씨는 이 같은 현상을 “종교를 갖지 않았거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온라인 종교사이트를 통해 종교활동

은 교회학습과 관련된 정보 획득, 회원과 의 만남, 설교듣기, 상담 순이었는데 가톨릭은 신자간 교류나 뉴스 이용 토론 목적, 개신교는 신자들의 교제나 신앙활동, 불교는 정보획득을 위해 사이트를 이용하



“종교 사이트 이용 하루 평균 51분”

박수호씨 박사논문 ‘인터넷 이용과 종교의식’서

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교 사이트가 각 종교의 효과적 선교수단이 될 수 있음을 반증한다고 분석했다. 종교사이트를 이용하는 주된 동기로

는 이들의 비율이 두드러졌다. 각 종교별 종교의식의 차이 조사도 재미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종교간 대화와 협력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다원화 정도는 ‘가톨릭>무(無)종교>불교>개신

교’로 나타나 개신교의 배타성이 확인됐다. 평신도 중심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개신교>불교>무종교>가톨릭’ 순으로, 개신교가 평신도 활동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개인의 일상생활이 종교에 의해 규정되는 정도는 불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탈선통화에 대한 태도는 ‘불교>개신교>가톨릭’의 순으로 나타나 성소(聖所)에 가지 않고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종교활동에 대해 타종교보다 불교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수호씨는 “인터넷 연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인터넷 종교활동 비중도 커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인터넷을 개신교처럼 선교 공간으로 사용할 것인지, 가톨릭처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인지 등을 불교계 역량을 감안해서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한국불교법사대학에서 법사의 삶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출강통신 법사학인 수강생 모집

13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불교활동들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5학년도 제14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① (사)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 ④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됩니다. (종단·법인등록 포함)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교육방법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로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참구 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학습도량

- ①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5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②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우편·팩스 접수 가능)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지동 110-1번지 (경지빌딩 3층)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팩스 737-5305

베스트 셀러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속을 보이는 사람들

해탈이란 마음의 해탈이다. 어느 것에도 얽매지 않는 마음의 자유가 해탈이다. 이것과 저것을 가르고 내 것과 남의 것을 가르는 문명성을 버리고 마음 깊숙이 들어온 내면의 소리를 곁집어내는 것이 해탈이다. “저를 해탈하게 하소서.”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는가?”
“아무도 저를 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승천 대사의 해탈법문을 듣는 순간 온갖 번뇌와 미혹, 망상과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전리를 깨닫고 해탈의 경지를 얻은 구도자는 훗날 제4대조가 된 도신 대사이다.

본문 해탈이란 무엇인가? 주

• 해광스님 지음
열린출판사 / 값 9,000원

해광(海光)스님 불교비전연구소 ‘불기비의’, / 실용역학서 ‘운명비결’ / 저서 최초의 소설식 불교교리서 ‘왕초보 절에 가다’ 집필 중.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환하게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 해광스님 지음
신코판 / 양장본 / 416페이지
정가 12,900원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수와 속명
- 자궁자의 사주팔자
- 집, 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사주팔자
- 부동산(집, 땅, 가게, 사업장)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 교제, 결혼, 취직)의 궁합
-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즉시 판단하는 법
-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행자 전수자 모집

금강선원 해광스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31-14 TEL 032)665-8472